

또 오디션 ... 시청자는 지겨워

아이돌 데뷔전 팬덤 형성 쉬워 기획사 선호
언더나인틴·YG 보석함 등 기존 방송 답습
몇년간 유사 프로그램 범람에 피로도 급증

오디션 프로그램 옆에 또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10년 전 가장력이 뛰어난 보석들을 발굴하기 시작된 오디션 프로그램은 어느새 아이돌 그룹 멤버 발굴을 위한 것으로 주된 흐름만 바뀌어 계속 생산되고 있다. 전통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K팝스타’, 국민이 직접 뽑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호시인 ‘프로듀스’ 시리즈, 춤을 평가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댄싱9’, 논란이 되면서도 높은 화제성을 유지하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와 ‘고등래퍼’ 등이 그동안 시청자들을 찾았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넘쳐나지만 정작 차별화 요소는 찾을 수 없어 시청자들의 피로도는 높아진다. 현재 방송 중인 오디션 프로그램인 MBC TV ‘언더나인틴’, SBS ‘더 팬’, ‘YG 보석함’ 등도 이미 방송한 오디션 프로그램과 차별화에 실패하면서 저조한 화제성에 그친다. MBC TV ‘언더나인틴’은 엠넷 ‘프로듀스’ 시리즈 등 기존 아이돌 발굴 오디션 프로그램을 사실상 답습했다. 우선 여자 아이돌보다 더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고 적극적인 소비능력을 갖춘 여성 팬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보이밴드를 데뷔시키고자 한다. 시청자 투표 방식으로 예비 아이돌의 생존과 탈락이 결정되는 방식, 교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출연자들 모습도 ‘프로듀스’ 시리즈와 비슷하다. 다만 보컬 팀, 퍼포먼스 팀, 랩 팀으로 나뉘어 서로 경쟁한다는 점은 다르다. 화제성 면에서는 ‘프로듀스’ 시리즈를 따라가지 못한다. 전도연, 이예잔, 지진성 등 일부 출연자가 주목을 받지만,



MBC TV ‘언더나인틴’

아직 ‘화력’이 미미하다. 시청률도 1%대다. YG엔터테인먼트가 내놓은 ‘YG보석함’은 화제성 측면에서는 ‘언더나인틴’보다 나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네이버 V앱과 JTBC2를 통해 매주 금요일 공개되는 ‘YG보석함’은 지난 6일 기준으로 3회 만에 2795만뷰를 돌파했다. 그러나 ‘YG만의 신인 제작기’라는 점 빼고는 크게 다른 점이 없는 데다가 YG의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도 처음이 아니다. YG는 지난 1월 종영한 JTBC ‘믹스나인’을 제작했으나 우승팀을 데뷔시키지 않아 큰 비판을 받았다. 일부 팬은 “타사 연습생들의 데뷔는 무산시켜놓고 ‘YG보석함’을 내놓은 것은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언더나인틴’과 동시간대 방송되는 ‘더 팬’은 아이돌 가수

발굴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과거 ‘판타스틱 듀오’와 ‘K팝스타’를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이 두 프로그램과 달리 심사위원은 없다. ‘더 팬’의 오디션은 스타들이 팬이 돼서 ‘떨 것 같다’고 먼저 점찍은 예비스타를 무대에 올리면 최종 우승자는 대중이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도 ‘더 팬’의 화제성은 오히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보다 더 높다. 박용주, 비비, 임지민 등 출연자들의 실력이 출중하고 비교적 전통적인 형식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보다 더 폭넓은 연령대 시청자의 눈과 귀를 붙든 것으로 분석된다. 시청률도 6%대로 순항한다. 성공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손에 꼽을 정도인데도 끊임없이 시도되는 이유는 팬덤 형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산이, 당신이 성 평등을 알아?

광주 유튜버 김영빈씨 ‘옹앵옹’ 해석
데블스TV, 5일새 164만건 조회 ‘인기’

광주의 한 유튜버가 래퍼 산이의 신곡 ‘옹앵옹’의 노랫말을 해석한 영상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광주지역 청년문화기획사 ‘데블스’의 유튜버 크리에이터 김영빈(28)씨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데블스TV’에 올린 ‘산이 옹앵옹 가사를 해석해 보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5일 만에 조회수 164만회를 넘어 유튜브 인기 동영상 목록에 올라있다. 누리꾼들은 10만개의 댓글을 달아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산이(본명 정산·33)는 지난달 16일 이수영 남편 폭행 사건을 계기로 쓴 곡 ‘페미니스트’를 시작으로 ‘6.9cm’, ‘옹앵옹’을 잇달아 발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페미니스트’ 등에서 산이는 남성을 혐오하는 여성들을 비판하는 랩을 했다. 김씨는 영상에서 ‘산이씨가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것 말고 성 평등을 위해 뭘 했는지 모르겠다. 저는 (남성으로서) 젠더 기득권 위치에 있고 구조적 가해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쉽게 비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산이씨의 가사를 분석해봤을 때 혐오나 성차별에 대한 논리적인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고, 굉장히 논리가 빈약하고 부실하다’며 “한 번쯤 본인의 위치를 생각해보고 과연 정말로 매갈이 사회악인지, 매갈을 만들게 한 가부장제, 남성중심주의, 여성들을 향한 폭력 이런 것들이 진짜 사회악인지, 무엇이 더 악한지와 이걸 동원할 수 있는 개인인지 등에 대해 이해하는 태도라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TV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강남 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공복자들 스페셜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땀뽀결즈(재)	55 UHD 스페이스 강원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나쁜형사(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kbc특별대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듣는다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를 행복아카데미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공감다큐, 사람(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25 뿌까 55 뽀빠뽀 모두야 놀자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뿌까 55 닥터 365	00 토크콘서트 화통(재)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5 MBC 뉴스	00 토크콘서트 화통(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15 MBC 플러스특선 단짠 오피스	00 SBS 오뉴스 25 KBC저녁 뉴스 45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루기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건강문록 남도에 살아라! 30 생방송 TV블로그 쏘지락
[8]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차종우돌 만국 유람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땀뽀결즈	00 나쁜형사	00 복수가 돌아왔다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안녕하세요	10 MBC 스페셜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0 KBS 뉴스 40 이웃집 찰스(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세계 최고를 찾아라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폐루 맛기행 1부 잉카의 맛을 찾아서〉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7:30 띠띠뽀 띠띠뽀 08:00 덩동댕 유치원1~2 08: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뽀로로와 노래해요 09:15 뽀뽀뽀뽀 뽀로로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과일 티라미수와 굴샐러드 사과만두〉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청오뉴스 12:10 국한직업 스페셜 13:00 다큐 오늘 13:10 고양이를 부탁해 13:40 배워서 남줄렘(재) 14:30 몬카트(재)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6:15 똑딱맨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덩동댕 유치원1~2(재) 17:15 마사와 곰 17:30 띠띠뽀 띠띠뽀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19:00 몬카트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세계테마기행 〈가이드북에 없는 베트남 1부 천 년 다랑논의 당부〉 21:30 한국기행 〈국밥기행 1부 수구래의 추억〉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23:55 배워서 남줄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0일(음 11월 4일 丙子)
子	36년생 만만치가 없으니 단단히 버려야 할 것이다. 48년생 장고한 후에 실행하는 것이 맞다. 60년생 기교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클 것이다. 72년생 흡사해 보이지만 근본 원인부터 다르다. 84년생 우회하더라도 지장이 없으니 착실하게 임하라. 행운의 숫자 : 61, 42	42년생 파르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54년생 과정은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결과가 양호하리라. 66년생 상징성을 이해해야 속뜻을 파악할 수 있다. 78년생 드러나는 형태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이다. 90년생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4, 28
丑	37년생 사심을 버려야 진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49년생 조용히 덮어 두는 것이 옳다. 61년생 간접 경험의 효과가 매우 크다. 73년생 소신을 갖고 일관되게 진행하여야 결실을 맺는다. 85년생 화합은 부를 일으키며 불화는 부를 파멸시킬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05, 30	43년생 예상과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55년생 미리 확보해 두지 않는다면 서두르게 될 것이다. 67년생 혼란임이 없어야 할 것이다. 79년생 거의 비슷한 정황이 단순 반복 되면서 지루 하리라. 91년생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25, 04
寅	38년생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느니라. 50년생 방법까지 고려한다면 금상첨화이다. 62년생 너무 힘에 겨운 집이라면 내려놓아야 마땅하다. 74년생 노파심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추진력이 생긴다. 86년생 전격적으로 시도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0, 95	44년생 투명하게 처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니라. 56년생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68년생 참에 한 관심사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니라. 80년생 체면 따지지 말고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2년생 부분적인 곳에 집착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54, 78
卯	39년생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51년생 복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63년생 의연히 대처하자. 75년생 내버려 두면 불신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라. 87년생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보완해야 두어야 할 때이니라. 행운의 숫자 : 84, 92	45년생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느니라. 57년생 구태의연함을 벗어나 새롭게 전개 되는 국량이니라. 69년생 종합적인 진단이 관건이다. 81년생 상대의 논리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 93년생 유리한 국면의 기초를 다지게 되는 판세이다. 행운의 숫자 : 87, 94
辰	40년생 목이 마를 때 물을 갖다 주는 이가 보인다. 52년생 합목적성이 성과를 배가 시키게 된다. 64년생 눈에 띄지 않게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76년생 가까운 이와와 인연이 갑사로 연결되겠다. 88년생 즐겁고 경사스러운 일이 겹치리라. 행운의 숫자 : 94, 77	34년생 객관적인 사실로써 대해야 할 때다. 46년생 경사가 나서 떠들썩한 마당이로다. 58년생 상대의 마음을 읽고 처신하여야 자연스럽다. 70년생 첫머리가 지배적인 작용을 하리라. 82년생 원하는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현태이다. 행운의 숫자 : 35, 16
巳	41년생 좋은 마무리는 이익을 불러올 수 있다. 53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느니라. 65년생 운운만 잘 한다면 큰 이익을 꾀 할 수 있다. 77년생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89년생 편견에 사로잡힌다면 나쁜 상황이 된다. 행운의 숫자 : 63, 70	35년생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 47년생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선견지명이 절실하다. 59년생 형세를 뒤집을만한 신촌의 새싹이 아름답다. 71년생 생변함없이 한결 같아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83년생 역발상이 빛날 수다. 행운의 숫자 : 59, 03